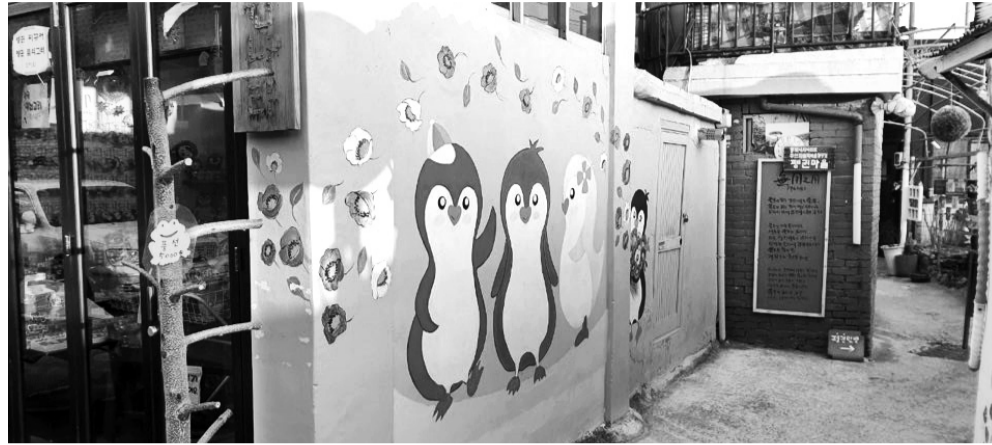


코로나도 못 막는 중국팬들 'BTS 사랑'

광주 출신 제이홉 생일 맞아 축하 벽화 그리려다 무산 뜻 접지 않고 대행업자 통해 14~28일 팬권마을에 벽화 제작



광주 출신 BTS 멤버 제이홉



제이홉의 생일축하 벽화가 그려질 광주시 남구 양림동 팬권마을. (남구 제공)

중국 아마팬들의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로 광주 방문이 무산됐음에도, '제이홉'에 대한 관심으로 광주 양림동 팬권마을에 기념 벽화 조성에 나섰다. 아마(Army)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회원이다.

10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중국 아마팬들은 BTS 멤버인 제이홉 생일(2월 18일)을 맞아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광주시 남구 양림동 팬권마을에 '생일 축하 벽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팬권마을 담벼락에 그려질 '제이홉' 생일 축하 벽화는 세로 14m, 가로 3.3m로 제이홉 얼굴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도안은 이번 주 확정된다.

벽화 제작은 최근 중국 아마팬들이 제

안한 제이홉 생일 축하 벽화 조성 계획을 BTS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인 아마팬들은 애초 제이홉 생일을 앞두고 대규모 생일 축하단을 꾸려 직접 제이홉이 태어난 광주를 찾아 벽화를 조성하려다가 신종코로나에 발목이 잡혀 입국을 포기했다.

제이홉 팬들은 입국이 여의치 않자 자신들을 대신해 벽화를 그려줄 국내 광고 대행업체를 직접 찾아내 벽화 제작이 나

서게 됐다. 중국 최대 SNS(소셜네트워

크서비스인 웨이보에만 30만명 이상의 제이홉 팬클럽 여러 개가 운영 중이다.

앞서 아마팬들은 제이홉의 생일을 앞두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5주년 문화 프로그램 티켓에 제이홉 얼굴과 홀로그램을 새겨넣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벽화제작을 의뢰받은 업체측은 "서울 등 수십 곳의 후보지 중 제이홉 고향인 광주, 그중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남구 팬권마을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 아마팬들은 제이홉의

출생지가 북구 일곡동인 점을 감안, 11일 북구정에 마스크 1460개를 기증할 예정이다. 아마팬들은 지난해에는 쌀을 기부했으나 올해 신종코로나 사태에 맞춰 마스크를 기증한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팬권마을 벽화 중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벽화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첫 사례"라며 "광주지역을 찾는 중국 관광객 대부분이 정월성 유적지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이번 벽화 조성으로 팬권마을도 아마 팬들이 찾는 명소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중국인 선원 입국 길 막혀 전남 어선 조업 포기 속출

갈치·조기잡이 출항 못해 어수·목포 등 피해 심각

전남 농·어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가뜰이나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하면서다.

당장, 어민들은 일할 선원을 구하지 못해 조업 자체를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근해 안강망(주머니 모양의 큰 그물) 어선에서 일하는 149명의 중국인 선원 중 126명이 신종코로나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선원들이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안강망 어선은 모두 55척으로, 여기에서 일하는 중국인 선원들 대부분이 춘철 전 중국으로 갔다가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 입국이 막혔다.

이 때문에 대체 선원을 구하지 못해 조업을 중단한 상태라는 게 전남도와 안강망 선주들 설명이다.

특히 목포의 경우 안강망 어선이 29척으로 전남지역에서 가장 많아 선주들의 피해도 심각하다.

목포근해안강망협회 양경숙 회장은 "목포지역 29척의 안강망 어선의 중국인 선원 92명 중 24명만 들어와 현재 12척만 조업에 나서고 있다"며 "한창 갈치와 조기잡이에 나설 시기에 출항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수(26척)와 군산(11척) 지역도 비슷한 상황으로 선주들은 탈(脫) 어촌과 고령화로 인해, 중국인이 아닌 다른 국적의 선원이라도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어려워 조업을 포기한 상태다.

정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신종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목포 안강망 어선들이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지역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러시아산 Siberian Chaga 시베리안 차가버섯 100% 동결건조 농축분말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코로나에 늘어난 물량... 택배기사들 '배달과의 전쟁'

하루 평균 물량 120개→160개 마스크 쓰고 배달하느라 진땀

"배달량도 부쩍 늘었어요.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해야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막혀서 힘들어요." 대한통운 택배기사 박환기(50)씨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하 신종코로나) 확산에 설 명절만큼 바쁘다.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대면 접촉을 피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설 명절 이후에도 '배달과의 전쟁' 중이다. 신종코로나 사태 전에는 광주시 서구 치평동 일대 배달 물량의 경우 하루 평균 120건에 불과했지만 2~3일 전부터는 160건까지 훌쩍 늘었다. 로젠택배도 비슷하다. 광주지사측은 "외출을 꺼리는 시민들이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도 휴업에 들어가면서 택배물량이 늘어난 것 같다"며 "가정 배달 물량이 늘면서 전체적인 배송량도 3% 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22번째 확진자의 직장인 광주 우편집중국이 폐쇄된 것도 택배기사들의

물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주우편집중국은 정규직과 시간제 실무원 등 520명에 대해 지난 5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가도록 했다. 우정청은 배송 지연을 우려, 우체국이 아닌 다른 지역 택배업체 이용까지 장려하고 나설 정도다. 택배기사들은 마스크로 인한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한 택배기사는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다 보면 숨이 턱 막혀 마스크를 벗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지만 감염 때문에 벗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백화점은 방역작업 중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0일 오전 하루 휴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을 실시했다. 광주신세계도 이날 휴점하고 방역활동을 벌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검찰 "타다'는 콜택시"...이재웅 대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대표 이재웅(52) 씨가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 대표 박재욱(35)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회사법인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뺀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결론적으로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사여객운송에 해당할 뿐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승객으로, 운전자는 근로자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검찰 측 말처럼 이용자 입장에서는 (타다가) 택시인지 렌터카인지 헷갈릴 것"이라면서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내 아버지 왜 무시해" 친구 폭행

○...자신의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해 자신을 무시했다고 친구를 때린 조폭 출신 30대가 경찰서행.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4일 자정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술집에서 친구 B(39)씨의 뺨을 때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이날 A씨는 본인의 아버지와 친구인 B씨 등과 같이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는데, 경찰관계자는 "아버지가 술자리를 떠나자 A씨는 B씨가 아버지에게 불손하게 대했으며, (내가) 강패 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나를 무시하니"며 주먹을 휘둘렀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